

수요시네클럽, 100번째 선물은 '프렌치 캉캉'

영화팬들의 오아시스 '광주시네마테크'

광주시네마테크는 지역 영화팬들에게 오아시스같은 존재다. 다양한 기획으로 영화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나희덕, 공선옥씨 등과 함께 한 '내가 사랑하는 고전영화', '가위손', '에이리어 1편' 등을 상영한 '다시 보는 클래식',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등을 만든 아키카우리스마키 특별전 등 지난해 시네마테크가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값진 행사였다.

시네마테크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토요일 시네클럽과 수요 시네클럽. 토요일 시네클럽은 최근 4년을 맞았고, 수요시네클럽은 100번째 상영회를 앞두고 있다.

고전·작가주의 영화감상 토요일클럽 등 인기
13~16일 페데리코 펠리니 회고전 5선
4월엔 영화평론가 참여 '영화 읽기' 진행

광주극장 1.5층 작은 꼬마극장에서 열리는 두 클럽은 누구든 자유롭게 참여해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고전영화들을 만나는 토요일시네클럽은 지난 2010년 3월 출발했다. 하워드 호克斯 감독의 '스카페이스'(1932)가 첫 영화였고 지금까지 150편이 영화팬들을 만났다. 광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았던 유병철씨가 상영작을 선정한다.

수요 시네클럽은 작가주의 감독의 작품을 집중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1월 짐 자무쉬의 '천국보다 낯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아무르'의 미카엘 하케네, 나루세 미키오, 레오 카락스, 장 피에르 발빌, 장 르누아르, 로베르 브레송 등 20명의 대표작을 상영해왔다.

감독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 신진아씨가 선정한다.

100회(12일 오후 7시)상영작은 누벨바그 감독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는 찬사를 바친 장 르누아르의 대표작 '프렌치 캉캉'(1954)이다. 프랑스 몰랭 루즈의 설립자 앙리 자들리의 삶을 바탕으로 뮤직홀에 경배를 바치고 있는 작품으로 장 가뱅, 가수 에디트 피아프 등이 출연한다. 필름으로 광주극장 스크린을 통해 특별상영한다.

올해 첫 기획전도 준비했다.

이탈리아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1920~1993) 회고전이다.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무방비 도시' 조감독으로 본격적인 영화 작업을 시작한 그는 아내 줄리에타 마시나가 주인공 켈소미나로 출연한 영화 '갈'로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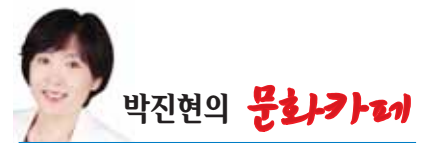
13~16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펠리니의 대표작 '달콤한 인생'(1959), 서커스적 유쾌함이 가득한 첫번째 컬러 영화 '영혼의 줄리에타'(1965), 자전적 작품 '광대들'(1970), 로마에 대한 초상화 '로마'(1972), 은퇴한 탭댄서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낸 '진저와 프레드'(1986) 등 5편이 상영된다.

4월부터는 '시네마테크와 함께하는 영화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화평론가 안시환, 광주독립영화협회전 대표 조대영씨 등이 참여한다. 문의 062-224-5858. http://cafe.naver.com/cinemasgwangju/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3일부터 열리는 '페데리코 펠리니' 회고전



박진현의 문화카레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등 수상자가 없는 2등을 차지하고 귀국하던 날, 담당공무원이었던 선생님께서 김 포공항에서 광화문까지 카퍼레이드를 열어주셨다.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만 허용되던 이벤트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정명훈)

책장을 넘기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문화예술계 인물의 현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연극배우 박정자,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문헌속 유니버설발레단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해 선생님의 '50년 외길 인생'에 축하와 존경을 전했다.

얼마 전 광주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뜻깊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무등산 시인'으로 불리는 범대순(85)시인의 시집 '무등산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로 가족과 제자, 지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그 흔한 화환과 봉투 대신 시 낭송과 음악이 어우러진 '포엠 콘서트'로 진행됐다.

정원담 전 전남대 법대 교수가 "초등학교 시절, 가난한 제자를 서울시장 예술감독..."

출판기념회 유감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행운의 주인공은 이종덕(80) 총무아트홀 사장이다. 지난달 팔순기념으로 펴낸 자서전 '공연의 탄생'은 1963년 문화부 공무원에서 출발해 예술기관의 수장에 오르기까지 숨겨진 살아온 삶의 궤적이 오롯이 담겨 있다. 사실 그는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등 국내 유수의 공연장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연계의 대부'다. 특히 일에 대한 열정과 아티스트를 배려하는 리더십으로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지난 1월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가 좋은 예다. 조출한 팔순잔치를 계획했다가 김의준 국립오페라단장,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 등 이른바 '이종덕 사단'의 설득에 못이겨 열게 된 자라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해인 수녀, 안숙선 명창,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며 말씀을 흐리자 일부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오랜 세월 곁에서 시인을 지켜본 노제자나 지인들의 추억담이 이어질 때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행사가 끝난 후 동행한 지인은 "눈도장만 찍고 중간에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일깨워준 소중한 자리였다"고 행복해했다. 아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래 붓물처럼 쏟아졌던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 열증을 느꼈던 모양이다.

원래 출판기념회는 문인이나 학자의 삶과 지혜가 담긴 저작의 출간을 축하하는 모임이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헌정(獻呈) 대신 출사표가 관치는 이벤트는 출판기념회가 아닌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출판기념회를 모독해선 안된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탄생 100년 정율성 '삶과 음악' 광주문화재단, 22일부터 연중 페스티벌

광주 출신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음악축제가 광주와 중국을 중심으로 연중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2일 양림동 오웬기념관에서 열리는 '정율성 음악 연주회'를 시작으로 '페스티벌 오! 광주 정율성 축제'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중국 유학생과 지역 대학생으로 구

성된 서포터즈 발대식, '꼬마 정율성 100인 합창단' 공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율성 작품 연주회', 정율성의 삶을 돌아보는 60여 점의 사진 전시회 등으로 진행된다. 음악회가 열리는 오웬기념각 역시 올해 건립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정율성 축제는 작품 연주회와 대한민국 성악계의 주역을 뽑는 광주성악콩쿠르(8월 9~30일),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하는 정율성 축제 본행사

와 한중전통문화교류(10월 24~25일) 행사로 개최된다.

또 8월에는 중국 문화부 산하 정율성음악기금과 베이징시 초청으로 광주 공연단이 펼쳐는 '한·중문화교류의 밤'과 중국 최초의 정율성기념관 재개관 기념으로 열리는 하얼빈음악제에 광주공연단이 참여 공연을 펼친다. 문의 062-670-746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15일 굴렁쇠 제작 교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사라져 가는 우리 옛 놀이 복원을 앞장서기 위해 15일 오후 4시 전통놀이 도구 제작소를 개최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전통놀이 기구는 도동테로 일반인들에게는 굴렁쇠로 알려진 친근한 전통놀이이다. 도동테는 나무로 만든 동근테로서 원래는 나무윷기를 돌려매는데 사용됐

다. 그러나 철이 수용되면서 바퀴테와 같이 철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러 있다.

참가신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 동반 가족 15팀 내외를 대상으로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를 통해 받는다. 문의 062-570-701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 한 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탈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